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군산시, 민선8기 로드맵과 실행계획 논의

군산시는 2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61개의 공약사업의 로드맵과 예산투자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특히 민선 8기 공약을 통해 지난 4년간 다져온 군산 경제의 자립 기반과 미래산업으로의 개편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 위에서 교육, 문화, 관광, 안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두루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더 나은 교육 여건 마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신산업과 농수산 6차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를 고도화해 일상 속에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약사업이 보고됐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공공학습앱 '공부의명수' 운영,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지원,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지원 10억 조성, △관광문화예술인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원, △지역자원 연계 치유산업 육성, △시민에게 돌려주는 철길숲 조성,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교통취약지역 이동 편의 증진 행복택시 도입 등이며, 시는 총 61개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단'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이번에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9월 공모를 거쳐 선발된 19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성됐다.

앞으로 공약이행 평가단은 임기 2년 동안 4개 분과(행정·교육, 경제, 문화관광, 안전복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률 점검 및 변경사항 검토, 아이디어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농촌일손안정 선도… 그물망 인력수급 구축

익산시, 시 직영 중개센터 운영… 4중 인력수급지원 체계 구축

익산시는 농촌일손 안정화를 위한 4중 인력수급지원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농촌일손 안정화를 위한 4중 인력수급지원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시는 직영 체제 농촌인력중개센터 강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로 타도시 인력유입,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인력지원으로 농촌인력 공급을 다양화해 '2023년 농촌일손 걱정 없는 인력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력시스템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늘어난 농민들의 부담을 시에서 직접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시 직영 체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시내권 유휴인력을 농촌에 투입한다.

시 지역센터는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도시인력 145명을 모집해 농촌지역에 배치했다. 내년에 도시인력 300명까지 확대 모집해 소규모 농가가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타 지역 인력을 유입해 익산의 고구마, 양파, 생강 등의 작물에 적합한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들이 익산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인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으로 농촌 일손을 해결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군산시는 2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목표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현장 중심 제설 대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제설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제설용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사전 확보와 제설 장비 사전 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제설자재 비축량은 소금 1,800톤, 염화칼슘 150톤, 친환경제설제 35톤 정도다. 향후 소금 1,700톤, 염화칼슘 95톤, 친환경 제설제 115톤 정도를 추가 확보해 최소한 지난 겨울철 사용량 만큼의 자재 확보를 통해 제설제 수급난 등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염수분사장치 3곳에 대한 시설 점검과 시내지역 고지대 및 외곽 고갯길 등에 대한 제설용 모래함 설치도 설해대책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제설작업 시 투입 장비는 제설차량 15톤 14대, 5톤 2대, 1톤 3대와 읍면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기 54대 등 총 73대가 투입된다.

또한 이면도로 및 다수 상가가 밀집된 도로 및 인도변에 대한 시민들의 '내 집(상가) 앞 눈 치우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설 장비 및 자재 지원을 읍면동과 협조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금속장신구 안전 문화 조성 공로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패션주얼리 메카로써 위상을 과시했다.

패션주얼리 산업부 공로상 수상

익산시, 대한민국 금속장신구 산업안전 주도

익산시가 금속장신구 안전 문화 조성 공로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패션주얼리 메카로써 위상을 과시했다.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22 대한민국 금속장신구 산업안전 Fair'에서 안전한 금속장신구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안경테 등 피부에 접촉하는 금속장신구 제품의 안전성 증명 및 향상에 기여한 단체가 참여해 기술을 공유하고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無니켈 금속장신구 기술개발, 생산, 시험 및 인증사업에 참여하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니켈이 들어가면 제품이 반짝이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無니켈 제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제품 안전성을 높여 나간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보증이 어려운 저가수입 금속장신구와 불법·불량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제도' 안착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부터 금속장신구 제품에 대한 니켈(Ni) 용출량 시험, 도금두께 측정 등 무니켈 검증 시험을 지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미래산업 핵심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산시가 미래산업 핵심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그린산단(새만금산업단지 5, 6공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첨단소재 업종 등 신산업 분야 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이씨스, 테이팩스, 이엔드디 등 (전기)자동차 8개사, 신재생에너지 1개사, 첨단소재 2개사, 기타 8개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 19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은 약 5,023억원으로 이에 신규 일자리도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선 8기인 7월이후 이차전지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해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인프라 형성과 관련 기업들의 추가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차전지소재 기업유치를 통한 관련산업 집적화와 새만금 중심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등) 생태계를 조성, 첨단소재 분야 기업 유치로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해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국내 강소기업을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공개채용

군산시는 2일 공공보건의 전문성과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4호)으로 지정해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역할은 기존 지역 보건사업 업무에서 나아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신규 채용되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공무원(개방형4호)으로 임용되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시민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이며, 기타 학력, 자격증,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기준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치킨 배달음식점 강력 식품위생점검 실시

익산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관내 52개 치킨배달전문점을 방문해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등록 식품, 무표시 식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 및 사용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 관리 △이물 방지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수거·검사 기간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이며,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이다.

점검 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행정지도하는 반면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는 과태료부과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시 관계자는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치킨 배달음식점을 집중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